

## 韓國經濟學의 成長構造 —1970年代 以後를 中心으로—

姜 命 圭\*

### I.

필자는 수년전(1981년)에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의 狀態(state of economics profession)에 관하여 微力하나마 試論的인 論文을 발표한 바가 있다.<sup>(1)</sup> 同論文은 李朝末 開港期에 外國으로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經濟學이 日帝時代와 8·15解放과 6·25動亂期를 거쳐 어떻게 變容되어 왔고, 1950년대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韓國經濟學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現實經濟 못지 않은 量的인 高度成長을 거듭하면서 어떠한 構造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確認하는 데 力點을 두었었다.

그리하여, 韓國經濟學의 變遷過程은 各時代狀況과의 연관속에서 관찰할 때 (1) 舊韓末의 初期導入期에 있어서의 西歐經濟學의 文獻들은 當時 日本을 濾過한 入門的 紹介書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 이 같은 外來經濟思想이 英國으로 말하면 古典派 經濟學의 初期에 해당되는 18세기 英·正祖期에 찬연히 빛났던 實學派의 經濟思想과 어떻게 連繫되는가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나라 歷史의 自主의 近代化思想의 系譜를 확인하는 要諦가 될 것이라는 것과 (3) 日帝時代의 韓國經濟學은 역시 1920년대 이후의 日本經濟學의 亞流 마르크스主義의 影響에다 植民地의 諸條件이 加重된 상황하에 있었기 때문에 經濟學의 正常的 發達이 굴절되어 理論面이나 科學性보다는 思想性이 더 강조되어왔고 (4) 解放後 混亂期에는 國家體制의 선택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눈앞에 놓고도 축적된 經濟學的 知識의 空白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 日本의 敎條主義의 마르크스 經濟思想이 獨舞臺를 이루다시피 되었던 것이며 (5) 이같은 의미에서 6·25이후야말로 學問으로서의 經濟學과 그리고 世界經濟學의 潮流와 접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6) 50년대의 整地作業위에 1960年 前後의 轉機를 맞아 60년대 後半期부터 70년대에 이르는 本格的인 經濟學의 發展相을 적어도 量的으로는 確認可能케 되었으며 (7) 이 時期에 와서 韓國經濟學의 構造的 變化를 살펴볼 때 現實經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拙稿, 「韓國經濟學史의 批判的 省察」,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1981年 12月, pp. 397-450.

〈표 1〉 기간별 경제학문헌 총발간추세 (1897~1985)

종류 \ 기간 <sup>1)</sup>	1897~ 1909	1910~ 1945 <sup>5)</sup>	1945~ 1950 <sup>6)</sup>	1951~ 1960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합 계
논문 <sup>2)</sup> (외국어) <sup>3)</sup>	157 (1)	1,648 (379)	419 (0)	254 (23)	667 (132)	1,224 (132)	2,229 (275)	1,903 (205)	2,885 (163)	11,386 (1,310)
학위논문 (외국어) <sup>4)</sup>	— —	6 (6)	— —	16 (14)	21 (18)	83 (31)	180 (67)	157 (79)	235 (136)	698 (351)
역서 (논문) <sup>3)</sup>	17 (9)	49 (21)	79 (21)	145 (1)	65 (3)	29 (4)	96 (39)	77 (18)	159 (23)	716 (139)
저서	12	54	64	156	235	153	306	418	460	1,858

자료: 李基俊編著, 『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 1980.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54~1985.

各大學·各學會 및 主要研究機關(29個)의 定期刊行物

주: 1) 期間의 區分에 關係서는 姜命圭, 「韓國經濟學史의 批判的 省察」, 서울大學校『經濟論集』, 1981, pp. 404-439를 參照할 것.

2) 1897~1950년까지는 各種雜誌, 1951년 이후는 專門學術誌의 論文篇數임.

3) 1945년까지는 日語, 그 이후는 英語가 大部分이고 其他 外國語가 약간임.

4) 大部分 英語이고 약간이 기타 外國語임(〈表 6〉 참조).

5) 1945.8.15 以前 (以下의 모든 表가 이와 同一)

6) 1945.8.15 以後 (以下의 모든 表가 이와 同一)

濟의 變動과 그리고 海外經濟學界의 움직임과도 상당한 程度로 相關度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韓國經濟學의 時代的 變遷相에 관한 實體的인 結論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파악하는 方法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위의 論文에서 지적한 일이 있다.<sup>(2)</sup> 그 첫째의 方法은 韓國人 經濟學者들이 各時代別로 產出해 낸 著書·論文·譯書라든가 經濟學 博士學位의 輩出數와 같은 經濟學의 活動量의 規模와 그 構造를 살핌으로써 그 時期의 韓國經濟學者들의 關心分野라든가 問題의 集中度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計量的 方法은 단순히 經濟學者들의 關心分野나 그 集中度의 變動에 관한 數的 資料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經濟學의 質的 變化에 관한 資料도 얻을 수 있는 方法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같은 質的 變化를 파악할 수 있는 方法의 대표적인 例가 學者들의 著作·論文에 대한 引用頻度(citation frequency)를 분석해서 그 學問的 價値를 평가하는 이른바 引用頻度 接近法(citation approach)이다.<sup>(3)</sup> 美國의 경우처럼 이와 같은 資料가 얻어질 수 있다면 被引用度가 높은 著者나 그 論文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중요한 客觀的 지표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引用學者나 引用學術誌의 수준에 따라 同 論文

(2) 拙稿, 앞의 論文, pp. 398-403.

(3) 이에 관련된 文獻은 拙稿, 앞의 論文, p. 400을 참조할 것.

의 一般의 수준과 國際化의 수준도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령 當該論文의 被引用頻度가 絶頂期이던 때의 折半으로 떨어지기까지의 經過年數를 편의상 同論文의 價値의 半壽命 내지 半減年數라 한다면 이 지표를 가지고 經濟學論文의 減價程度 내지는 陳腐化過程을 짐작하는 指標로도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만일 韓國人 經濟學者의 論文이 一級專門誌에서 被引用度가 대단히 높아지거나 그 半壽命의 길이가 平均值를 훨씬 능가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노벨 經濟學賞의 授賞可能性도 韓國人의 可視圈안에 들어 올 것이고 經濟學史에 記錄이 남겨질 確率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sup>(4)</sup>

지금 段階에 이 引用頻度接近法으로 볼 때 韓國人 經濟學者의 國際的 水準이 어느 정도에 와있는가를 가늠하는 한가지 자료가 있으므로 소개하면 이렇다.

英國 런던大學의 著名한 經濟學說史家 Mark Blaug가 世界 45個國에서 발간되는 200種以上の 經濟學專門誌를 포함한 5,000種의 社會科學學術誌(共產圈 포함)의 引用指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를 data base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2~83年の 10年間에 걸쳐 이 기간에 生存活動中인 世界의 17,000名의 經濟學者중 그 著作이나 論文의 被引用頻度가 가장 높은 順으로 1,000名을 골라 보았더니 (全體 top 6%) 가령 出生 기준으로 할 때 헝가리인이 12名, 日本人이 19名, 中國人이 9名이 포함되는데 비하여 韓人 經濟學者는 단 한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었다.<sup>(5)</sup> 1955년에 延世大 經營學科 출신으로서 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교수로 있는 李東憲 교수가 그 사람이다. 計量經濟學分野 등의 多數論文중 1965년에 A. Zellner와 共著로 낸 "Joint Estimation of Relationships Involving Discrete Random Variables" (Econometrica, April 1965)가 대표적인 業績으로서 지목되기 시작하여 貨幣理論, 消費者理論, 地域經濟學 分野의 理論에도 그 貢獻이 國際적으로 인정(引用)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引用頻度 接近法에 의한 學問評價에는 抵抗感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 方法이 갖는 技術상의 限界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經濟學者의 人員數나 그들의 著作活動이 少數에 지나지 않던 지난날의 時代와 달리 지금처럼 大規模 學問集團의 大量生産體制下에서 經濟學知識의 限界的 純増分을 計測한다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在來의 傳統的인 몇몇 영향력있는 經濟學者들(star economists)의 著述만을 分析하는 微視的 接近法(great man approach)만으로는 現代經濟學의 實態와 向方을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

(4) 이에 관해서는 R. Quandt, "Som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s Journal Litera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ug. 1976, p.754. 참고할 것.

(5) Mark Blaug (ed.), *Who's Who in Economics: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Major Economists 1700~1986*, 2nd edition, 1986, pp.504-505, pp.931-935.

기 때문에 이와 같은 統計的 接近에 의한 補完이 불가피해진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 II.

世界的(global) 視野에서 볼 때 經濟學의 發展에 韓國人의 創造的 寄與를 인정받는 정도가 이 정도로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國內의으로 볼 때는 지난 날에 비교하여 韓國人의 經濟學活動이 長足の 發展을 거듭해 온 사실도 또한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論文은 필자가 1981년도에 발표한 논문 내용이 大體로 1979년까지의 韓國人 經濟學者의 生産活動을 분석했던 것을 補完할 目的으로 그 이후 1980年代 前半期에 이르기까지 우리 經濟學의 規模와 그 構造가 어떻게 변했으며 또한 그 質的 內容이나 潮流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먼저 韓國經濟學者들의 學問的 業績을 평가할 수 있는 제 1 차적 자료는 學術論文・單行本著書・번역서 같은 著述件數를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에 國內의 主要學術誌에 발표되는 論文들 사이에 活發한 論評이나 論爭・批判・反批判 등이 日常化되어 相互間에 韓國人論文을 引用하는 事例가 集積되어 이른바 引用指數(citation index) 같은 것을 만들만한 分量이 된다고 한다면 外國에서 이용하고 있는 引用頻度 接近法을 활용하여 韓國經濟學의 現況에 관한 多樣한 分析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國際比較도 용이해 질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例外를 제외하면 발표된 論文이 일반적으로 읽혀지지도 않거나 읽혔다해도 이에 대한 專門的인 論評이나 論戰(debate)이 전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한다면, 韓國人끼리의 經濟學界가 과연 形成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70年代와 특히 80년대에 이르러 韓國經濟學會를 비롯한 各種學會와 主要大學들의 研究所들이 活況을 띠고 定例的인 學術大會를 盛大하게 치를 뿐 아니라 國文과 英文學術誌까지 발행하고 있는 터이므로 지난 날에 비할 나위없이 經濟學의 生産活動은 활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外樣的 成長에 비해 설사 創造的인 수준 높은 論文이 아니더라도 學者間의 論文을 통한(行事를 통한 形式이 아닌) 關心領域의 意見交換을 전개하는 風潮는 아직도 造成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면 필자의 지나친 판단일까?

필자의 寡聞 탓이겠으나, 우리나라의 經濟學이 아직도 移植初期단계라 할 수 있던 1966년 1월부터 8월까지 數個月에 걸쳐 전개되었던, 「中産層消滅論」을 둘러싼 林鍾哲・李昌烈 교수 사이에 촉발된 논쟁은 우리나라 經濟開發初期의 成長政策方向(大企業遍重과 中小企業育



成의 選擇) 문제와 연관된 現實的 課題에 관한 經濟學者間的 실천적 性格의 보기도문 논쟁이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社會學者와 史學者까지 加勢하게 됨에 따라서 論爭은 단순한 經濟政策課題의 수준을 넘어 理念的・歷史的 次元의 思索으로까지 提高될 수 있다는 事例를 보여준 價値있는 論爭史를 남긴바 있다.<sup>(6)</sup> 이와 같은 風潮가 그 以後에 學界에서 사라진 것은 韓國經濟의 發展段階가 달라진 데도 기인한 것이지만 經濟學者의 視界가 數量的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도 그 原因의 一端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아름든 大量生産단계에 들어 선 經濟學者들의 論著들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읽혀지지도 읽지도 않는 경향이 있고 海外學者의 論文을 引用할지언정 韓國人끼리의 論文引用을 輕視하기 때문에 이른바 經濟學의 土着化=韓國經濟學의 確立을 그만큼 멀어지게 하는 原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韓國人 經濟學者끼리의 論文의 相互引用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뒤집어 보면 國內學界가 아직 問題視할 만한 論爭이나 批判을 또는 反批判을 加할 만한 業績이 부족해서가 아니면 심하게 말해서 남의 論文을 읽지 않거나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의 반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될 하나의 問題는 經濟學者의 生産活動으로 生産된 知識產物(여기서는 論文이나 著書)이 그 價値가 일반적으로 不變이 아니라 계속 減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느 中堅經濟學者는 “뒤늦게 歸國한 사람이 그 이전에 돌아온 선배에 비하여 보다 最新의 理論으로 무장하였다는 점에서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같은 우월감도 오래되지 않아 최근에 歸國한 후배앞에 萎縮되어 버리는 치졸한 경향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같은 우스꽝스런 경향에서 脫皮하여 韓國에서도 經濟學知識이 축적・발전될 수는 없을가?”<sup>(7)</sup>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最新動向의 한 斷面을 노출시킨 매우 興味있는 觀察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發言은 물론 젊은 經濟學者의 學問的 姿勢를 문제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學的 生産物의 減價償却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관한 檢證資料는 없지만 하나의 臆測으로 外國의 事例를 본다면 論文의 年引用頻度가 絶頂期의 折半으로 떨어지기까지의 經過年數=半壽命으로 계산할 때 經濟學은 平均 5.4~5.5年(物理學・醫學은 4年)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經濟學論文의 創造的 價値는 平均的으로 5年餘가 지나면 急降下(半減)한다는 것이다.

(6) 林鍾哲, 「經濟學研究 40年」, 서울大學校 學問研究 40年(1)——總括・人文・社會科學, 1987, pp. 270-271.

(7) 金秉柱, 「韓國經濟學의 現況과 課題」, 『韓國經濟學의 摸索』, 韓國經濟研究院, 1983, p. 187.

經濟學者들의 生産活動을 평가하는 또 다른 尺度는 한 學者의 代表的 論文(問題作)을 집필할 當時의 平均 自然年齡은  $38\frac{1}{4}$ 歲이고 이때의 Ph.D.年齡(學位를 받은 후의 經過年數)은 平均  $7\frac{1}{2}$ 年이어서 이때가 經濟學者의 「生産性」이 가장 높은 時期로 인정되고 있다. (8) 그러나 當該學者나 問題作의 「引用頻度」가 가장 높은 時期(執筆時期가 아닌)는 平均自然年齡 45歲일 때이고 Ph.D.年齡  $14\frac{3}{4}$ 年이 되는 때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즉 經濟學의 論文이나 Ph.D.의 生産性(創造的)은 自然年齡 38歲를 지나거나學位取得後 7年半이 지나면 急降下하는데도 그 學者(論文)의 名聲度는 平均年齡 45歲,學位取得後 15年 程度까지 대체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現代에 있어서의 經濟學의 價値生産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사람의 年齡帶와 相關시켜 보고자 하는 하나의 尺度에 불과하지만 古典派時代의 經濟學者들은 그 主業績의 生産年齡이 훨씬 높았던 것이므로 (例 J.S. Mill 42歲, Ricardo 45歲, Smith 53歲, Malthus 50歲, Marx 49歲 등) 4, 50代라고 해서 반드시 悲觀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新古典派時代 이래 Marshall(48歲)이나 Edgeworth(58歲) 같은 例外가 적지는 않지만 Jevons(36歲), Menger(31歲), Walras(40歲) 등 三人의 天才를 비롯하여 Schumpeter(25~29歲) 같은 이도 있는 반면 Keynes는 『一般理論』을 53歲에 출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Keynes나 Marx의 體系가 그 主著出版 훨씬 이전에 着想되어 왔다는 것은 오늘날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밖에 Hicks(35歲), Samuelson(32歲) 같은 이를 들어 보거나 위의 平均自然年齡 38歲가 生産性이 絶頂期라는 統計를 보거나 역시 經濟學者들의 學問的(創造的)業績은 40 以前에 피크에 달했다가 40代

〈표 2〉 한국경제학계 교수의 연령층 구성

연령층	30세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세이상	합계
국립대학 (전임강사)	경제학과	(6)	21 (8)	21 (2)	17	13	7	6	—	98 (16)
	무역학과	5 (8)	12 (8)	18 (3)	11(1)	12	3	4	—	68 (20)
	소 계	5(14)	33(16)	39 (5)	28(1)	25	16	10	—	166 (36)
사립대학 (전임강사)	경제학과	7(12)	36(11)	51 (3)	71(1)	44(3)	41	22	14	3289 (30)
	무역학과	3 (9)	30(11)	42(10)	44(5)	35(1)	25	10	6	2197 (36)
	소 계	10(21)	66(22)	93(13)	118(6)	79(4)	66	32	20	5489 (66)
합 계	15(35)	99(38)	132(18)	146(7)	104(4)	82	42	30	5	655(102)

자료: 문교부, 『국립대학(교) 교원명부』, 1985. 10. 1 현재.

문교부, 『사립대학(교) 교원명부』, 1985. 10. 1 현재.

주: ( )안은 專任講師

(8) G. Stigler and C. Friedland, "The Citation Practices of Doctorates in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5, pp. 477-507. M. Bordo and D. Landau, "The Pattern of Citation in Economic Theory 1945~68,"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979, pp. 240-253.

中盤까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이것을 참고로 우리나라 經濟學教授들의 年齡構造를 1985年度를 중심해서 볼 때 經濟學교수 總 655名中(貿易學科 포함) 45歲 未滿이 약 60%인 392名으로서 이는 1980~81 년도의 53.6%에 비하여 상당히 젊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私立大學과 國公立大學의 비교 에 있어서는 國公立大學 교수의 63.3%, 私立大學은 58.7%가 45歲 未滿의 年齡構成이다.<sup>(9)</sup>

이와 같이 韓國의 經濟學教授들의 年齡構成이 젊어졌다는 것은 經濟學에서는 價値創造의

〈표 3〉 기간별·분야별 경제학 문헌 구성(1961~1985)

분야 기간·종류		000	100	200	300	400	600	700	800	900	합 계
1961 ~ 1965	저서	96 (40.9)	32 (13.6)	10 (4.3)	49 (20.9)	8 (3.4)	6 (2.6)	23 (9.8)	5 (2.1)	6 (2.6)	235 (100)
	역서	32 (51.6)	17 (27.4)	1 (1.6)	2 (3.2)	3 (4.8)	2 (3.2)	2 (3.2)	2 (3.2)	1 (1.6)	62 (100)
	논문	177 (26.5)	96 (14.4)	12 (1.8)	66 (9.9)	67 (10.0)	30 (4.5)	95 (14.2)	85 (12.7)	39 (5.8)	667 (100)
1966 ~ 1970	저서	60 (39.2)	20 (13.1)	4 (2.6)	29 (19.0)	8 (5.2)	5 (3.3)	12 (7.8)	12 (7.8)	3 (2.0)	153 (100)
	역서	5 (20.0)	7 (28.0)	1 (4.0)	6 (24.0)	1 (4.0)	1 (4.0)	2 (8.0)	1 (4.0)	1 (4.0)	25 (100)
	논문	250 (20.4)	152 (12.4)	33 (2.7)	72 (5.9)	149 (12.2)	54 (4.4)	216 (17.6)	197 (16.1)	101 (8.3)	1,224 (100)
1971 ~ 1975	저서	115 (37.6)	37 (12.1)	21 (6.9)	27 (8.8)	34 (11.1)	8 (2.6)	34 (11.1)	18 (5.9)	12 (3.9)	306 (100)
	역서	28 (49.1)	10 (17.5)	2 (3.5)	5 (8.8)	4 (7.0)	0 (0.0)	4 (7.0)	2 (3.5)	2 (3.5)	57 (100)
	논문	386 (17.3)	242 (10.9)	94 (4.2)	105 (4.7)	468 (21.0)	109 (4.9)	339 (15.0)	325 (14.6)	161 (7.2)	2,229 (100)
1976 ~ 1980	저서	147 (35.2)	57 (13.6)	30 (7.2)	59 (14.1)	52 (12.4)	15 (3.6)	21 (5.0)	25 (6.0)	12 (2.9)	418 (100)
	역서	16 (28.8)	13 (22.0)	4 (6.8)	5 (8.5)	11 (18.6)	1 (1.7)	5 (8.5)	2 (3.4)	2 (3.4)	59 (100)
	논문	312 (16.4)	241 (12.7)	95 (5.0)	109 (5.7)	295 (15.5)	188 (9.9)	339 (17.8)	174 (9.1)	150 (7.9)	1,903 (100)
1981 ~ 1985	저서	184 (40.0)	81 (17.6)	10 (2.2)	29 (6.3)	56 (12.2)	25 (5.4)	20 (4.3)	34 (7.4)	21 (4.6)	460 (100)
	역서	67 (49.3)	25 (18.4)	2 (1.5)	3 (2.2)	23 (16.9)	7 (5.1)	0 (0.0)	6 (4.4)	3 (2.2)	136 (100)
	논문	437 (15.1)	379 (13.1)	189 (6.6)	306 (10.6)	559 (19.4)	357 (12.4)	323 (11.2)	198 (6.9)	137 (4.7)	2,885 (100)

자료: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61~1985, 論文에 관한 資料는 〈表 1〉과 같음.

주: 分野분류기호는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AEA)에 따른 것임.

(9) 여기서 注意를 要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統計的 平均値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年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그 學者의 價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더구나 우리에게 切迫한 문제는 「經濟學知識의 蓄藏·發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 앞의 註(7)참조.

潛在力이 커진다는 것을 일반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 기간(1981~85年) 동안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어떤가?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간별 경제학문헌 발간추세에 관한 <表 3>으로써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물론 經濟學人口自體의 증가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80年代에 와서 論文(學位論文 포함) 發行數가 70年代 後半期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sup>(10)</sup>

### III

그러면 여기서 우선 특히 70年代 및 60年代와 비교해서 1980年代에 韓國經濟學界가 산출해 낸 연구실적의 量的 構造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每 5個年 단위로 비교할 때 1981~85年은 70年代 後半期에 비해 論文(學位論文 포함) 약 50%, 譯書 약 2倍, 著書 10%가 증가함으로써 學問活動의 成長과 健全化의 方向을 나타내 주고 있다. 왜냐 하면 研究實績의 바탕없는 大同小異한 教科書類刊行의 流行보다는 學術論文의 比重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번역서의 출간이 倍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와 60年代 前半期까지 활발하던 外書번역이 그후 침체되었다가 이제 다시 되살아 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古典을 비롯한 良書의 우리말로 번역은 제 아무리 原書入手가 쉬운 時代라 하더라도 강조되어야 할 일이다.<sup>(11)</sup>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번역서의 선택이라든가 번역자의 선정이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져서 번역내용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치없는 일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學者들의 신중한 검토에 의하여 經濟學書의 책임있는 번역사업이 제 2의 창조작업이라는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以下에서 經濟學刊行物들의 總量的 趨勢의 내용을 살피기 위하여 經濟學者들의 關心分野가 어떻게 분포되어 왔고 또 그 構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國內에서 발표된 學術論文들의 동향부터 고찰한다면 1960年代에 一般經濟學分野(美經濟學會分類 000臺)가 優位이던 것이 1970年代에는 그 前半期에 國際經濟學分野(400臺)가 이를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同 後半期에는 農業 및 天然資源分野(700臺)가 一時 上昇했으나 80년대 前半期에 와서 國際經濟學분야가 다시금 모든 분야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論文들의 연구 동향은 이 期間에 있어서의 韓國經濟의 成長方向과 이제 밀접하

(10) 1961~75年間에는 每 5年마다 論文增加率이 二倍以上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 기간은 成長率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70年代 後半期の 經濟學論文 감소현상은 別途의 설명이 필요한 部分이다.

(11) 趙 淳, 「韓國經濟學論」, 『韓國經濟學의 摸索』, 韓國經濟研究院, 1983, p. 184.

〈표 4〉 분야별 경제학 학술 논문 구성 (1970~1985)

연도	분야	000	100	200	300	400	600	700	800	900	합 계
1970		61 (21.3)	19 (6.6)	3 (1.0)	13 (4.5)	48 (16.7)	18 (6.3)	56 (19.5)	39 (13.6)	30 (10.5)	287 (100)
1971		61 (21.3)	19 (6.6)	9 (3.1)	15 (5.2)	42 (14.6)	14 (4.9)	53 (18.5)	41 (14.3)	33 (11.5)	287 (100)
1972		78 (18.8)	36 (8.7)	12 (2.9)	18 (4.3)	83 (20.0)	18 (4.3)	66 (15.9)	82 (19.7)	23 (5.5)	416 (100)
1973		80 (17.2)	46 (9.9)	28 (6.0)	20 (4.3)	109 (23.4)	15 (3.2)	63 (13.5)	76 (16.3)	28 (6.0)	465 (100)
1974		85 (17.0)	53 (10.6)	13 (2.6)	19 (3.8)	120 (24.0)	17 (3.4)	87 (17.2)	64 (12.8)	42 (8.4)	500 (100)
1975		85 (16.1)	86 (16.6)	34 (6.6)	31 (6.0)	80 (15.5)	26 (5.0)	76 (14.7)	65 (12.6)	36 (7.0)	517 (100)
1976		85 (15.3)	87 (15.6)	29 (5.2)	34 (6.1)	80 (14.4)	24 (4.3)	100 (18.0)	63 (11.3)	54 (9.7)	556 (100)
1977		121 (23.0)	49 (9.3)	30 (5.7)	26 (5.0)	70 (13.3)	35 (6.7)	98 (18.7)	53 (10.1)	43 (8.2)	525 (100)
1978		23 (13.4)	23 (13.4)	8 (4.7)	2 (1.2)	13 (7.6)	9 (5.2)	46 (26.7)	26 (5.5)	22 (12.8)	172 (100)
1979		39 (13.9)	31 (11.1)	13 (4.6)	16 (5.7)	63 (22.5)	42 (15.0)	51 (18.2)	14 (5.0)	11 (3.9)	280 (100)
1980		35 (8.8)	51 (12.8)	15 (3.8)	32 (8.1)	89 (22.4)	84 (21.2)	50 (12.6)	19 (4.8)	22 (5.5)	397 (100)
1981		72 (16.1)	61 (13.6)	27 (6.0)	33 (7.4)	86 (19.2)	56 (12.5)	69 (15.4)	27 (6.0)	16 (3.6)	447 (100)
1982		52 (12.6)	64 (15.5)	25 (6.1)	32 (7.7)	95 (23.0)	51 (12.3)	48 (11.6)	32 (7.7)	14 (3.4)	413 (100)
1983		99 (16.5)	84 (14.0)	32 (5.3)	72 (12.0)	103 (17.2)	60 (100)	74 (12.3)	45 (7.5)	31 (5.2)	600 (100)
1984		105 (16.0)	78 (11.9)	48 (7.3)	80 (12.2)	103 (15.7)	93 (14.2)	62 (9.5)	50 (7.6)	36 (5.5)	655 (100)
1985		109 (14.1)	92 (11.9)	57 (7.4)	89 (11.6)	172 (22.3)	97 (12.6)	70 (9.1)	44 (5.7)	40 (5.2)	770 (100)
1986		77 (12.5)	78 (12.6)	41 (6.7)	87 (14.1)	128 (20.8)	76 (12.3)	72 (11.7)	29 (4.7)	27 (4.4)	615 (100)
합 계		1,265 (16.0)	957 (12.1)	424 (5.4)	619 (7.8)	1,484 (18.7)	735 (9.3)	1,141 (14.4)	769 (9.7)	508 (6.4)	7,902 (100)

자료: 〈표 1〉 〈표 3〉과 同一

계 연관되고 있음을 실증해 준다. 對外貿易依存度가 深化되어 國際經濟關係가 高度화된 우리의 成長類型은 이미 定型化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研究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70年代 後半期의 農業 및 天然資源분야에 대한 關心集中 현상은 70年代의 1,2次 石油波動을 겪은 餘波라고 생각된다.

80年代 前半期에 있어서 韓國經濟學者들의 가장 큰 關心은 國際經濟學분야이며, 그중에서도 70年代에 그 비중이 컸던 貿易去來나 經濟協力(420)분야보다 이제는 國際收支・國際金融(430)분야가 더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傳統的으로는 壓到的 비중을 차지해 왔고 비록 점차 그 比重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경제학 다음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一般經濟學분야(000臺)에서는 그 構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70년대까지 經濟史(040)가 압도적이었음은 필자의 前記 論文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제 80년대에 와서 그같은 經濟史의 壓倒的 比重의 低下와 대조적으로 純粹理論(020) 및 思想史・方法論(030)에 관한 論文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제 이 세 分野가 고른 分布를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다만 經濟體制論(050)은 그 연구가 매우 低調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세번째 比重이 큰 經濟成長・發展분야(100臺)는 어떤가? 60년대 전반기에 모든 분야중 두번째의 比重이었으나 70년대에는 그 비중이 低下되었다가 다시 회복세에 있는데, 그중에서는 역시 各國研究(120)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는 成長・發展政策論(110)과 景氣變動・인플레이션(130)이 뒤따르고 있다.

80년대 前半에 와서 네번째의 연구분야는 뜻밖에도 産業組織・技術變化・産業研究분야(600臺)이다. 이 분야는 70년대 前半期까지 거의 末席을 차지하던 분야인데 이같이 두드러진 關心영역이 된 것은 輸出增進과 연관된 各種産業의 研究가 자극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産業組織・政策분야(610)와 産業別연구분야(630)가 지배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다섯째로 農業 및 資源분야(700)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70년대 後半期에 一時的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일이 있는 以外에는 長期的으로는 下降추세에 큰 變化가 없고 農業분야(710)가 支配的 비중을 점하고 있다.

여섯째는 國內貨幣 및 財政분야(300)인데 60년대 後半期 이래 低調하던 경향이 一新하여 80년대 前半期에는 全體論文의 10.6%의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70년대에는 4.7~5.7%에 불과했다). 전통적으로 財政분야(320)가 우세했으나 85년부터 金融(310)의 比重이 커가기 시작한다. 70년대부터 國際經濟學분야의 急上昇과 대조적으로 下落추세에 있던 財政・金融분야의 相對的 지위는 점차 上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의 現實的・政策的 重要도에 비해 研究人力이 不足했던 현상이 變化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일곱째로 勞動經濟學분야(800臺)는 60년대 이래 계속 下降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韓國經濟의 成長유형을 반영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1987년도와 같은 勞動문제의 폭발적 경험은 이에 대한 學界의 視角을 달리할 것이 예상된다.

여덟번째의 計量・統計분야(200臺)의 연구는 가장 낮은 분야이기는 해도 80년대에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끝으로 후생・도시분야(900臺)는 그 順位가 가장 낮은 분야이지만 그 내역은 70년대의

〈표 5〉 분야별 한인경제학자 외지발표 논문 구성 (1970~1985)

연도	분야	000	100	200	300	400	600	700	800	900	합 계
1970		1	5	—	1	5	1	—	—	1	14
1971		5	5	1	—	1	—	2	2	5	20
1972		5	5	2	4	7	3	5	5	6	39
1973		5	6	1	4	5	3	—	—	1	25
1974		4	6	9	7	10	—	4	4	1	45
1975		5	4	3	3	1	3	6	3	1	29
1976		7	1	7	3	4	3	—	2	1	28
1977		—	1	1	—	2	1	1	1	2	9
1978		—	2	2	—	2	1	—	2	—	9
1979		6	4	12	13	6	5	2	7	4	59
1980		5	3	10	8	2	4	6	1	3	42
1981		11	3	9	9	6	7	9	8	12	74
1982		5	6	8	8	3	9	11	6	8	64
1983		12	9	11	21	10	12	12	4	3	94
1984		14	6	10	15	12	15	3	10	10	95
1985		12	8	4	32	9	11	10	7	7	100
합계		97	74	90	128	85	78	71	58	65	746

자료 : AE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ubject Index of Articles in Current Periodicals," March 1970~Dec. 1985.

- 주 : 1) 人名確認에 錯誤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誤差가 있다고 봄.  
2) 大部分在外韓人이나 國內經濟學者の 논문도 포함됨.

都市문제 (930), 地域경제 (940) 위주에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후생·보건문제 (910)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다음에는 韓人經濟學者들이 海外專門誌에 발표한 論文의 趨勢를 살펴 보기로 하자. 필자가 1981년에 쓴 글에서는 1980년 현재의 추세를 알아 본 일이 있으나 여기서는 1985년까지의 자료로써 1970년이후의 경향을 通時的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여기서 사용한 資料源은 美國經濟學會발간의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ubject Index of Articles in Current Periodicals," March 1970~Dec. 1985."이었다.

이에 관한 몇가지 特徵을 추출해 본다면 우선 1970년이후 通時的으로 볼 때 韓人經濟學者들의 外誌發表論文은 各分野(9個)별로 비교적 그 分布가 고르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國內誌發表論文들의 경우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령 國際經濟學분야(400臺)가 計量統計분야 (200臺)의 약 3.5배나 되는 등 분야間的 分布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반하여 外誌發表論文들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國內發表論文들이 國際經濟學분야에의 集中度가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外誌發表論文에서는 貨幣·財政분



야 (300臺)에 집중도가 相對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中分類로 본 外誌論文들의 특징은 첫째 一般經濟學에서는 순수理論분야(020)가 압도적이며, 둘째 經濟成長・發展분야에서는 政策분야(110)와 經濟變動분야(130)가 우세하며, 셋째 貨幣・財政분야에서는 貨幣金融분야(310)가 財政분야(320)를 압도하고 있으며, 넷째 國際經濟學에서는 1970년대는 무역론(410)과 海外投資(440)가 주도해온 데 비해 80년대에 들어 와서는 國際收支문제(430)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섯째로 노동분야에서는 70년대에는 人口문제(840)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80년대에는 勞動市場・政策(820)에 대한 關心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밖에 產業組織분야(600臺), 農業分野(700臺), 厚生・都市문제(900)등은 國內誌의 경향과 類似하기 때문에 따로 論及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에 經濟學學位(博士)論文의 추세를 잠깐 살펴본다면, 1985年 현재 國內學位論文 347편, 國外學位論文 351편으로서 國內는 1970년대 前半期에, 그리고 國外學位論文은 1980년대 前半期에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이것을 分野別로 分布상태를 보면 國內學位論文은 一般經濟學분야(000)에 약  $\frac{1}{3}$ 이 집중된 반면에 計量經濟 및 統計분야는 불과 11편에 지나지 않은 극심한 기복이 있으나 그 밖의 분야는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國外學位論文은 外誌發表論文과 비슷하게 모든 분야에 비교적 고른 分布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

〈표 6〉 기간별・분야별・언어별<sup>1)~3)</sup> 경제학학위논문 구성 (1910~1985)

연도 \ 분야	000	100	200	300	400	600	700	800	900	합 계
1897~1909	—	—	—	—	—	—	—	—	—	—
1910~1945 <sup>4)</sup>	0/ 2	—	—	—	—	—	0/ 2	0/ 1	0/ 1	0/ 6
1945~1950	—	—	—	—	—	—	—	—	—	—
1951~1960	2/ 3	0/ 3	—	0/ 4	0/ 1	0/ 1	0/ 1	0/ 1	—	2/ 14
1961~1965	2/ 1	0/ 5	0/ 1	0/ 4	0/ 2	1/ 1	0/ 1	0/ 1	0/ 2	3/ 18
1966~1970	20/ 5	7/ 6	3/ 6	5/ 4	1/ 5	2/ 3	7/ 0	7/ 0	0/ 2	52/ 31
1971~1975	38/ 3	10/ 7	4/ 12	11/ 4	12/ 12	12/ 3	10/ 11	10/ 11	6/ 4	113/ 67
1976~1980	21/ 7	6/ 15	1/ 8	5/ 12	8/ 15	12/ 4	5/ 7	10/ 7	10/ 4	78/ 79
1981~1985	25/ 14	12/ 23	3/ 9	7/ 11	18/ 36	14/ 15	9/ 8	4/ 8	7/ 12	99/ 136
합 계	108/ 35	35/ 59	11/ 36	28/ 39	39/ 71	41/ 27	31/ 30	31/ 29	23/ 25	347/ 351

자료 : 李基俊編著, 『資料韓國經濟學發達史』, 1980.

國會圖書館, 『韓國 博士 및 碩士學位論文總目錄』, 1980~1986.

柳莊熙, 「경제학박사들 : 과연 供給過剩인가」,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論文集(Ⅱ)』, 1986.

주 : 1) 國語論文數(A)와 外國語論文數(B)의 對比(A/B)임.

2) 外國語論文은 外國大學의 學位論文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兩者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

3) 外國語論文은 英語가 압도적이고 기타 外國語가 약간임.

4) 1945. 8. 15를 기준으로 區分했음.

만 國際經濟學분야가 多少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韓國人(國內)에 의한 經濟學書 單行本の 發간추세를 보면 70년대 前半 5個年에 306卷, 後半 5個年에 418권, 80년도 前半 5個年에는 460권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sup>(12)</sup> 論文의 증가추세에는 못 미치고 그리고 여전히 一般經濟學분야(000臺) 다시 말하면 教科書類의 비중이 가장 크며(40%) 80년대에 들어서 經濟發展・成長분야(100臺)의 單行本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80년대의 현저한 경향의 하나가 經濟學의 번역서 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一般經濟學분야(000臺)가 절반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經濟思想분야(030)가 많다. 그 밖에는 經濟成長・發展분야(100臺)와 국제경제분야(400臺)에서 外書번역이 증가하고 있다.

#### IV.

1981년에 필자가 「韓國經濟學史의 批判的 省察」이란 제목下的 論文속에서 韓國經濟學史를 파악하는 方法으로서 대체로 위에서 論及한 定量的 分析을 試圖한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當時에도 지적했듯이 이 方法이 唯一・最上の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經濟學의 狀態로 보아 不得已한 次善의 方法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같은 定量分析 微視的으로 본 特定學者의 特定研究의 內容과 그것이 미친 바 영향을 質的으로 定性分析도 是의當하는 作業이 並行되어야 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sup>(13)</sup>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록 次善의 方法일지언정 知識産業으로서의 性格分析이나 量的 成長의 構造분석에 관한 接近과 試圖없이 理論이나 政策면에서 支配的인 영향을 미친 (이른바 star economist에 의한) 特定한 業績을 一般的으로 論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단계에 韓國經濟學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1950年代나 60년대에 비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 와서 韓國經濟學은 눈부시게 발전되었음은 自他가 公認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은 發展의 實相도 제일차적으로는 經濟學者의 數, 博士學位 取得者의 數, 論文과 著書 發表數, 國際化的 수준(外誌發表論文數) 또는 論文 引用頻度와 같은 量的 變化로써 파악이 되는 것이지 몇몇 元老學者의 論著(great man approach)라든가 어떤 問題에 관한 論爭史자료 같은 것이 뚜렷이 부각되어서 韓國經濟學特

(12) 앞의 <表 3> 참조.

(13) 拙稿, 앞의 論文, pp. 439-440.

有의 흐름을 體系의으로 파악할 수 있는 事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령 韓國人 經濟學者들의 國際化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指標로서 外誌發表論文件數를 든다 하더라도 1985년도에 100편의 韓國人 論文이 確認되고 있어 70년대에 비해서 비약적인 向上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日本은 1964년에 216편, 1969년에 409편이 된다는 事實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sup>(14)</sup>

그러나 어떻든 간에 韓國經濟學의 量的 成長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바이고 또 그 수준도 向上途程에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러나 後者の「水準」을 측정하는 方法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茶山經濟學賞制度가 있어 韓國의 經濟學者들에게 적지 않은 刺戟이 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受賞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經濟學者들로서 빛나는 業績을 낸 분들의임에는 틀림없겠으나 受賞作이 韓國經濟史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該當學者의 特定論著의 創作에 대해서 보다는 經濟學教育에 미친 長年의 一般的 業績을 評價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限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韓國經濟 자체의 實績에 비추어 볼 때 “經濟理論과 政策의 韓國의 特性과 寄與를 韓國經濟의 具體的 實體에 照明해” <sup>(15)</sup> 보아야 實踐의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學問的 成果에 대한 客觀的 評價가 可能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이 문제에는 經濟學者들의 學問的 研究와 政府의 經濟政策 사이의 關係에 관한 外見上 단순히 보이지만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構造가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단히 興味있는 論文이 최근에 나왔으므로 소개하기로 하자. 美國에 있어서의 경험을 중심한 것이기는 하지만 一般性이 있는 示唆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sup>(16)</sup>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自己들의 研究業績이 政府의 公共政策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런 期待속에서 수많은 調查研究과 論著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實際로 채택되고 참고되었다고 確認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아마도 微微하거나 無視해도 좋을 만한 정도일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 첫째의 理由는 經濟學者들이 너무도 순진(단순)해서 그들의 經濟學的 研究와 論著가 公共政策에 結實을 맺도록 하자면 이들 연구자체와는 別個의 메카니즘이 있어서 이를 잘

(14) 玉野井芳郎, 『日本の 經濟學』, 1971.

(15) 鄭丙壽 교수의 論評, 拙稿, 앞의 論文, p. 454.

(16) Robert H. Nelson, "The Economics Profession and the Making of Public Polic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87, pp. 49-91.

活用하여야 비로소 所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一般的으로는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17)</sup> 그렇다면 이 特有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政策當局의 意思決定機構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各 經濟部處의 政策決定수준의 官僚層이거나 最高意思決定者이다.

그런데 둘째의 문제는 大學이나 研究機關 經濟學者들의 研究實績이 이들에게 먹혀들어 가도록 하여야 하는데 점점 그것이 어려워 진다는 데 있다. 그것은 가령 美國의 경우 Eisenhower 대통령때로부터 Carter 行政府에 이르는 20年間 全閣僚(長官)와 次官級 官僚의 8%가 經濟學 Ph.D學位 所持者이기 때문에<sup>(18)</sup> 이들에게 說得力있는 政策提案이 용이하지 않다는 側面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늘날 經濟學界의 論文이라는 것이 너무 抽象化되고 數理化되어 있어 우선 그것을 官吏들이 消化・理解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當場의 公共政策에 活用할 수 있는 形態를 學者들의 研究論文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經濟學者가 政府政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關鍵은 아주 전전한 常識線의 經濟學이면足하고……누구나가 大學의 經濟學原論課目에서 얻은 정도의 基礎的 分析들이면 되는데……다만 그들이 制度的인 制約들 속에서 어떻게 修正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sup>(19)</sup> 있느냐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American Economic Review*와 같은 學術誌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論文들이 政府가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또 그 逆의 경우(즉 官吏의 研究가 同誌에 실릴 수 있는)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學術誌論文들은 政府側 에코노미스트의 典型的 報告物들과는 類似性이 거의 없게 되었다”<sup>(20)</sup>는 것이다.

세째로는 政府의 最高意思決定機構에 설사 經濟學者가 接近되었다 하더라도 그 學者의 學說이나 提議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첫 關門이 最高意思決定者와 그 週邊(側近)人物들에게 우선 人間的으로 信賴를 얻어야 먹혀들어 간다는 것이다. 美國大統領 經濟諮問委員長을 지낸 Heller가 “맨 첫번째 일은 核心人脈(inner circle)속에 끼어들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했듯이 學者의 學說이나 經綸에 앞서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先行的 作業이 必然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을 認識해야 될 것이다.<sup>(21)</sup> James Tobin 교수도 비슷한 경험담으로서 經濟學者가 상아탑에서 얻었던 資料들만으로 現實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한 일이 있지만 어떻든 “최고수준의 政府政策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어도 核心的인

(17) Ibid., p. 49.

(18) Ibid., p. 75.

(19) Ibid., p. 84.

(20) Ibid., p. 85.

(21) Ibid., p. 66.

意思決定者와 親近한 人間關係를 유지할 수 있는 동안에만 限定되는 것이다.”<sup>(22)</sup>

네째로 經濟學者의 政策提議가 먹혀들어가기 어려운 또 하나의 원인은 이런 데 있다는 것이다. 즉 傳統的으로 經濟學者들은 一般的으로 市場原理와 經濟效率이라는 두가지 武器를 바탕에 깔고 價值中立의이며 科學的인 立場임을 固守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政策行爲의 合理化에 크게 寄與해온 것은 사실이지만(本質的으로는 그러한 態度自體가 價值中立의 이 못된다는 論議는 차치하고라도), 政治的 立場을 避할 수 없는 位置의 政策意思決定者는 日常 價值判斷과 理念鬭爭과 政治決斷의 洪水속에 呑沒해서 結論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때 經濟學者의 이같은 態度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sup>(23)</sup>

以上과 같은 美國의 경우를 중심한 問題提起는 우리에게 상당한 參考가 된다고 본다. 韓國 經濟學者들의 經濟現實에 대한 實踐의 寄與는 이같은 制約條件下에서 평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960년대의 評價教授團의 寄與를 論外로 하고 1970년대 이후 이른바 參與教授들의 役割이라는 것도 생각컨대 위와 같은 制約條件下의 것이라고 추정해도 無理가 없을 것이다. 우리 慣例로는 失禮가 되는줄 알면서 列舉하자면 가령 南惠祐, 金滿堤, 李承潤, 故 徐相哲, 羅雄培, 司空壹, 朴英哲, 金基煥氏 등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經濟學者들로서 經濟政策의 最高意思決定과정에 참여한 분들이지만 아마도 위에서 제시한 制約條件을 비슷하게 體驗했거나 또는 그것들을 克服하는데 非常한 能力이 所要되었을 것이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70년대 이후 政策決定에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쳤다고 추정되는 經濟學者들의 理論이나 思想은 위에서 본 制約條件下에서이지만 韓國經濟의 進路와 類型형성에 얼마나 影響을 주었을까? 이 물음에의 對答은 생각밖으로 쉽지 않다. 周知하듯이 最終意思決定은 多樣的인 利害關係와 對立的인 壓力下의 政治的 決斷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sup>(24)</sup>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主要參與 經濟學者들이 大部分 1960년대 이후의 美國의 主流經濟學=新古典派 綜合體系의 經濟學教育을 받았고 그 후에도 이 主流經濟學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이에 대해 批判的인 어떤 다른(非主流) 經濟理論과 思想을 연구했거나 論文을 쓴 例가 없었다는 點에서 우리나라 經濟政策의 基調를 추정할 수 있다는 點이

(22) Ibid., pp. 66-67.

(23) Ibid., pp. 56-57.

(24) 直接的인 參與經濟學者들이 이럴진대 一般大學 教授들의 影響력은 不問可知라 하겠으나, 그런 만큼 교수는 官邊으로부터 距離를 둔 間接的인 參與方式이 오히려 價值있는 寄與를 할 것이라는 見解가 있다. 邊衡尹, 「韓國經濟學의 展開過程」, 『韓國經濟學의 摸索』, 韓國經濟研究院, 1983, p. 57.

다. 즉 1960年代 이래 韓國經濟를 主導해 온 經濟理論과 思想의 基礎는 「대체로」 오늘날의 主流經濟學의 潮流의 테두리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政策參與 經濟學者들과 다른 立場에 있는 아카데미안으로서의 大學 經濟學 교수들은 어떤 潮流의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가? 아마도 아직까지는 絶對多數가 역시 主流經濟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論文과 著書의 理論의 骨格이 여기에 依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교수 自身들의 教育背景<sup>(25)</sup>과 또 우리나라 大學의 經濟學教科課程을 보거나 教育內容을 보거나 간에 新古典派綜合의 理論體系가 支配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一般均衡論을 바탕으로 하는 主流經濟學에 대하여 危機意識을 통감한 나머지 여기에 반기를 드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經濟原論을 저술한 學者까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sup>(26)</sup> 이것은 극히 드문 例外的 現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Joan Robinson 교수의 이른바 「經濟理論의 第二의 危機」(1972) 이래 主流經濟學의 危機論이 世界的으로 論難된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經濟學界에 地殼變動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經濟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經濟學危機論이 流行한지 10餘年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劃期的인 새로운 paradigms가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既往의 正統經濟理論에 代替되는 새로운 理論體系가 確立되어 있지도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케인즈經濟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多樣하게 전개되면서 post-Keynesian, neo-Keynesian 등이 나오고 또 케인즈派에 대한 通貨主義派, 新古典主義 經濟學(new classical economics)의 挑戰이 있을 뿐 아니라 急進派 經濟學(이 潮流는 지금은 상당히 쇠퇴과정에 있지만)과 19世紀부터 내려오는 맑스主義 經濟學이나 新制度學派 등 多様な 潮流의 學派들이 活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廣義의 正統經濟學의 內容을 豊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짧게는 100年(限界革命 이후) 길게는 200年(Adam Smith 이후) 동안 다져져 온 市場理論과 一般均衡理論體系를 붕괴시켜 새 paradigms에 의한 새로운 經濟原論體系를 완성하여 經濟學界를 지배하고 또 教育體系도 바꾸어 놓을 만한 狀態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主流經濟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와 같이 多様な 思想과 理論이 韓國經濟學界에서 消化되어 우리의 知識蓄積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視界가 擴大됨으로써 創造的인 業績들이 韓國 經濟學者들에 의해 산

(25) 가령 서울대 李之舜 교수와 같이 시카고學派의 洗禮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 이 분은 여기서 말하는 廣意의 主流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26) 그 唯一最初의 例가 朱宗桓, 『經濟學概論』, 一潮閣, 1977.

출되기를 갈망하여 마지 않는 것이 필자의 희망이다.

그러나 다만 非主流 내지 批判經濟學을 응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古典派든 新古典派든 主流 내지 正統經濟學을 제대로 消化하고 그 知識을 系統的으로 축적하여 단순히 理論의 道具性만이 아니라 그 思想性까지 理解함으로써, 그와 같은 理論模型이 韓國의 文化・歷史・制度的 條件에 적용될 때 어떤 變容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이것을 抽象的으로서가 아닌 具體的・實際的인 水準에서 應用하고자 하는 努力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sup>(27)</sup> 마르크스의 批判經濟學인 『資本論』이 그 시대의 主流正統經濟學인 古典學派理論에 대한 실로 30餘年間の 피나는 鑽착의 결과라고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얻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다.

## V.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相當기간 동안) 輸入經濟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韓國經濟學의 存立樣態에 대하여 憂慮를 하는 經濟學者들의 글들이 近年에 많이 나왔다.<sup>(28)</sup> 이 우려와 批判들의 초점은 美國式 新古典派 經濟學의 數學的 形式性・技術的 道具性・非歷史性・非人間性・非政治性・非社會科學性 같은 側面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相當한 共感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外國經濟理論의 固有的 屬性을 捨象한 抽象的이고 보편적인 分析技法만을 도입하여 이것을 우리의 風土에 應用할 때 韓國經濟學의 定立이 가능할 것이라는 視角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그러나 이 문제는 經濟學이라는 學問이 가지는 兩面性 즉 道具性和 思想性的 두가지 側面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先進經濟理論의 無批判的 盲信 云云하는 비판이라든가 美國經濟學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이 실은 經濟學의 道具性에 묻혀들어 오는 思想性 내지는 制度・歷史的 前提에 대한 비판일 것인데, 그러면 經濟學에서 이 兩側面이 分離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經濟理論 중에는 순전한 道具性만으로 구성된 부분도 물론 있으나 이 兩面이 密着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外來經濟學의 도입에 있어서는 그것을 낳은 思想的 背景을 함께 工夫를 하여야만 비로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

(27) 이와 같은 接近態度的 實例로는 鄭暢泳, 「西歐經濟理論의 韓國經濟現實에 대한 適用可能性의 程度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學의 摸索』, 韓國經濟研究院, 1983, pp.192-202.

(28) 韓國經濟研究院, 『韓國經濟學의 摸索』, 1983 참조.

(29) 李承勳 교수의 論評, 拙稿, 앞의 論文, p.452.



나, 그리고 버리는 대신에 무엇을 더 첨가할 것이냐를 결정할”<sup>(30)</sup> 判別力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例로 近者에 巨視經濟理論에 있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온 케인지안 경제학과 새 古典派 經濟學(new classical economics)간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들 사이의 정교한 理論模型 展開의 이면에는 그것들이 기본적인 經濟觀(自由主義 對 干涉主義)의 對立과 均衡理論의 應用性 문제 등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sup>(31)</sup>

이 論文의 앞 部分에서 필자는 現段階 韓國經濟學의 수준을 國際的 次元에 비추어 지나치리만치 評價切下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고 이것은 결코 自己卑下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潛在力을 過少評價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邊衡尹 교수의 말처럼<sup>(32)</sup> “한국의 경제학도……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의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이 나와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음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경험을 쌓아 오면서 미국의 주류경제학이 가지는 장단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뒷받침할만한 최근의 業績으로서 한 두가지 例를 들자면 林元澤·邊衡尹·趙淳 外 七人共著의 『韓國經濟의 理解』(1987)와 趙淳·朱鶴中 外 共著의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1987)의 두 책에 담겨져 있는 韓國經濟現實에 대한 多様な 論文들의 密度있는 分析能力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20인의 著者들 중 특히 젊은 經濟學者들의 分析態度를 보면 先進經濟理論에 대한 盲信으로 우리 經濟의 特殊條件에 대한 問題意識을 忘却한다고 하는 비판은 지나친 杞憂임이 입증되고도 남는다. 더구나 이 수준의 젊은 經濟學者가 오늘날 결코 적은 수에 그치지 않음에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經濟學의 가장 큰 共有財産이 한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젊은 學者들의 實證分析能力 다시 말하면 計量經濟學의 素養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들에게 制度나 歷史 또는 經濟學의 思想性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欠落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背景으로 인해서 韓國經濟學界는 知的 多様性(intellectual pluralism)이 欠如된 monoculture가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經濟學界가 이와 같은 單細胞의 增殖過程을 탈피하여 多様な 視角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經濟史와 經濟思想史의 知識축적이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 「韓國」經濟史와 「韓國」經濟思想史도 물론 증시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 있어

(30) 邊衡尹, 「韓國經濟學定立의 方向」, 第6회 茶山經濟學賞 受賞紀念論文, 韓國經濟新聞, 1987. 10. 11, p. 13.

(31) 李性輝, 「合理的 期待理論과 巨視經濟學의 變貌」, 金宗炫·金信行編, 『經濟學의 最近動向』, 서울大 經濟研究所叢書 Ⅶ, 1987, pp. 93-95.

(32) 邊衡尹, 앞의 論文, p. 13.

서 우리 것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도 先進諸國의 研究業績에 관한 本格的인 研究가 오히려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韓國經濟의 現實에 관한 分析이 先進理論의 習得에 의해 高度化되었듯이 歷史分析도 一般史가 아닌 經濟史라면 經濟理論과의 交渉은 물론이요 先進諸國의 方法論을 배워야 된다는 點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先進知識의 도입은 切實한 것이다. 日本의 歷史學界가 學問性을 갖추는 過程에서 日本國史연구보다 그에 앞서 西洋史의 연구가 先行的으로 主導해 감으로써 可能했었다는 사실은 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sup>(33)</sup> 지금 우리 經濟學界는 理論分野와 歷史 및 思想분야간의 不均衡이 우심한데서 오는 communication gap을 조속히 메꾸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 責任을 통감하는 바이다.

韓國經濟學界의 虛點으로 메꾸어야 될 두번째 課題는 이른바 政治經濟學의 문제다. 政治經濟學의 개념규정은 극히 애매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폭넓게 非主流 내지는 批判經濟學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多樣한 發展을 위해서 從屬理論, 社會主義 經濟理論, 急進派經濟學 등이 研究되어야 한다는 데 異議가 있을 수 없다. 這間에 있어서 몇몇 少數學者들에 의한 이 분야에 대한 關心표명과 著作이 나온 바 있으나 問題意識의 熱情에 比해서는 大體로 理論의 根據나 論理的 脈絡 그리고 實證分析에 있어서 說得力이 그다지 높다고는 볼 수 없었다.<sup>(34)</sup>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水準提高를 위해서도 역시 外來理論의 消化・蓄積은 緊要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1985년에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초청으로 來韓했던 S. Amin이나 1987년 여름에 내한했던 유고슬라비아의 B. Horvat를 비롯한 폴란드・헝가리 등 東歐諸國 출신의 學者들은 美國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來往하는 大小 經濟學者들과는 分明히 다른 풍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關心있는 國內學者들이 充分한 交流의 기회를 活用하지는 못한 것 같다.<sup>(35)</sup>

여기서 政治經濟學의 受容에 관해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點은 첫째 이 분야 역시 위에 언급한 것처럼 海外로부터의 導入단계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비로소 지식축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는 이 분야의 전공으로는 海外 특히 美國(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에서는 一級大學에서 學位取得의 길이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분야의 研究가 어떤 政治的(실천적) 性格의 운동이나 主張과 결부되어서는 진정한 수준 높은 學問으

(33) 1960代 中葉에 世界 歷史家協會 任員이었던 日本東大 經濟史교수 高橋幸八郎가 서울에 와서 國內 史學界 元老들에게 한 말이며 그 자리에 金宗炫 교수와 필자가 참석했음.

(34) 가령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독한 길을 걸어온 學者는 民族經濟論을 제창하는 朴玄採氏다. 박현채, 『한국경제구조론』, 1986. 이밖에 종속이론을 지향하는 李大根,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1987. 邊衡尹氏, 『反主流的 經濟學』, 1981(착실한 번역논문집이다). 金秀行, 「한국경제학계의 새로운 동향들」, 『현상과 인식』, 1987년 봄호, pp.119-113 참조.

(3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사회주의 경제체제 및 개혁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1987. 9. 1~3.

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韓國經濟學의 수준을 높이고 그 多樣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先進理論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것은 결코 主體的인 한국경제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經濟理論과 思想은 開放되어 있어야 本來의 自己 것을 찾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學問의 自由交流는 韓國의 經濟學을 살찌게 하는 必要條件이라고 생각한다.

美國의 經濟學이 形成初期(19世紀末)에 주로 獨逸經濟學의 도입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sup>(36)</sup>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美國經濟學도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移住해 온 유럽 大陸系 출신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美國經濟學의 性格을 數理 및 計量經濟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948년 이후의 美國經濟會會長중 열사람이 유럽출신(Schumpeter, Harberler, Machlup, Fellner, Leontief, Marschack, Koopmans 등)이었으며, Oskar Morgenstein, Tintner, von Neumann, Georgescu-Roegen, Hurwicz, Abraham Wald, Haavelmo 등과 같은 쟁쟁한 數理經濟學者들이 渡美하여 Cowles Commission에서 「計量經濟學의 英雄時代」를 연출하게 된 것이 밑거름이었던 것이다.<sup>(37)</sup> 美國經濟學의 이와 같은 경험은 결코 우리에게 他山之石이 안 될 수 없다고 본다.

(36) J. Dorfman, "The Role of German Historical School in American Economic Thought", *AER*, May 1955, pp. 17-39.

(37) E. Craver and A. Leijonhufvud, "Economics in America: the Continental Influenc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ummer 1987, pp. 173-182.

〈부표 1〉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 中分類(1979~1986)

분류번호	년도	79	80	81	82	83	84	85	86
000	010		1	1			2	1	5
	020	4(4)	3(5)	14(4)	6(8)	6(16)	3(9)	5(4)	4(7)
	030	7	5	4	6(1)	11(1)	9(1)	9(1)	11(2)
	040	13(1)	8(1)	8(1)	5	14	21	22(1)	12
	050			2		(1)	2	2	2(1)
	소계	24(5)	17(6)	29(5)	17(9)	31(18)	37(10)	39(6)	34(10)
100	110	1(1)	4(2)	12(2)	8(1)	10(2)	7(1)	12(3)	9(2)
	120	13(1)	16(1)	15(2)	23(4)	41(2)	40	28(3)	28(6)
	130	4(2)	4(1)	4	4	2(2)	9(1)	5(1)	1(3)
	소계	28(4)	24(4)	31(4)	35(5)	53(6)	56(2)	45(7)	38(11)
200	210	1(1)	2(1)	1(2)	3(1)	7	2(1)	3(2)	6(3)
	220	7	7	7(2)	6(1)	9(1)	14	15(2)	11(1)
	소계	8(1)	9(1)	8(4)	9(2)	16(1)	16(1)	18(4)	17(4)
300	310	1	5	3(1)	1(1)	5	8	13(6)	3(7)
	320	12	14(3)	14(2)	17	28(5)	20(3)	14	17(7)
	330						1		
	소계	13	19(3)	17(3)	18(1)	33(5)	29(3)	27(6)	20(14)
400	410	2	4	4	(1)	(3)	1(1)	6(2)	3(3)
	420	22	21	17	15	17(2)	4(2)	20(2)	9(6)
	430	13	25(2)	22(1)	22(1)	31(4)	16(2)	31	22
	440	3(1)	6(1)	4	6(1)	3	20	12	8(3)
	소계	40(1)	56(3)	47(1)	43(3)	51(9)	41(5)	69(4)	42(12)
600	610	11(3)	21(2)	9	14(1)	21(4)	23(4)	17(2)	16(7)
	620	5		(1)	3(1)		5	2	4
	630	14	13	5	8	6	8	13	12(1)
	소계	30(3)	34(2)	14(1)	25(2)	27(4)	36(4)	32(2)	32(8)
700	710	44	30	46(1)	31	34	32(2)	30(3)	32
	720	4	7	6	4	4	4	1(2)	2
	730			1		2	1	1(1)	2
	소계	48	37	53(1)	35	40	37(2)	32(6)	36
800	810	5	6	4(1)	6	16	6(2)	6(3)	4(2)
	820	3	3	7	3	4(1)	4	1(2)	4
	830	2(1)	6	2(1)	10	7(2)	10	9	2
	840	1		1		1(1)			
	850								(1)
	소계	11(1)	15	14(2)	19	28(4)	20(2)	16(5)	10(3)

900	910	5	5	5	2	2	2	7(2)	6(1)
	920	2	3	2	2	3	4	3	1
	930		2		1	4	3(1)	1	2
	940	(1)	6(1)	6(1)	1	3	2	4	2(1)
	소계	7(1)	16(1)	13(1)	6	12	11(1)	15(2)	11(2)
합	계	209(16)	227(20)	226(22)	207(22)	291(47)	283(30)	293(42)	240(66)

자료: 위 <표 5>와 同一.

주: 괄호안의 숫자는 영어논문편수임.

<부표 2> 經濟學文獻의 分類

000 (「一般經濟」類)	一般經濟學(010); 一般經濟理論(020); 經濟思想史 및 方法論(030); 經濟史(040); 經濟體制(050)
100 (「經濟成長」類)	經濟成長 經濟發展 經濟計劃의 理論 및 政策(110); 國別研究(120); 經濟變動 豫測 安定 인플레이션(130)
200 (「計量經濟」類)	計量經濟의 統計的 및 數學的 方法 및 모델(210); 經濟 및 社會統計的 資料 및 分析(220)
300 (「貨幣財政」類)	國內貨幣金融理論 및 制度(310); 財政理論 및 政策 公共財政(320)
400 (「國際經濟」類)	國際貿易論(410); 貿易關係 貿易政策 國際經濟統合(420); 國際收支 國際金融(430); 國際投資 및 外國援助(440)
500 (「經營」類)	經營(510); 企業財政 및 投資(520); 마케팅(530); 會計學(540)
600 (「產業組織」類)	產業組織 및 公共政策(610); 技術經濟學(620); 產業研究(630); 經濟能力(640)
700 (「農業」類)	農業(710); 自然資源(720); 經濟地理(730)
800 (「勞動力」類)	人力訓練 및 配分(810); 勞動力 및 供給 勞動市場 公共政策(820); 勞動組合 團體交涉 勞使關係(830); 人口經濟學(840); 人的資本(850)
900 (「福祉」類)	福祉 保健 및 教育(910); 消費經濟學(920); 都市經濟學(930); 地域經濟學(940)

자료: AE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분류를 邊衡尹교수가 번역한 것임. 邊衡尹, 「韓國經濟學的 展開過程」, 『韓國經濟學的 摸索』, 韓國經濟研究院, 1983, p. 45.

## 〈討 論〉

### 金光錫教授\*의 論評

이 論文에서는 사실상 解放이후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發展過程을 잘 說明해 주고 있으며, 특히 70년대 이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학자들의 業績을 중심으로 經濟學界의 動向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著者自身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학자들의 著書 및 論文의 數量的 증가나 分野別 構成趨勢 등의 分析을 통해서 한국경제학의 外形的 成長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한국경제학의 質的인 面에서의 發展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面에서 이 논문은 「韓國經濟學의 成長構造」에 관한 制限된 일부만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解放이후 우리나라 經濟學의 發展過程을 外形的으로나마 總體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貴重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論文에서의 한국경제학계의 動向에 관한 論議는 좀 皮相的인 감이 있으나 그런대로 現實을 無理없이 잘 表現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특히 다음의 내용이 關心을 끈다.

“經濟學者들의 論著들은 …읽혀지지도 않는 傾向이 있고 海外學者의 論文은 引用할지언정 韓國人끼리의 論文引用은 輕視하기 때문에 이른바 經濟學의 土着化=韓國經濟學의 確立은 그만큼 멀어지게 하는 原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內容은 우리 경제학계의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어느정도 사실이며 한국경제학 發展을 위한 核心的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하여 이 點에 대해서 論評者의 意見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런데 한국경제학자들간의 論著引用을 경시하는 傾向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은 國內學者가 한국자료를 사용하여 경제학 이론을 실증적으로 檢證해 보거나 또는 經濟變數間의 因果關係 등을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研究結果를 담은 著書와 論文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經濟現象의 實證的 分析에 입각하지 않은 理論이나 論述은 보다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外國學者들의 論著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外國學者 論著內容의 翻譯物에 불과한 國內學者의 論著를 읽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실 自他를 막론하고 國內經濟學者들의 經濟關係 著書는 대부분 大學教科書類에 속하는 것이었고 또한 學術論文의 相當部分도 대중잡지의 論說文과 別差없는 實證的 分析의 基礎가 된 약한 것이었

\* 慶熙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다는 것을 수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國內經濟學者들간의 論文引用頻度を 높이고 한국경제학의 土着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자료를 사용하여 實證的 分析을 하고 거기에 기초한 論著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姜교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학교수의 약 60% 이상이 45歲미만의 年齡層에 속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제 計量經濟學的 分析能力을 共有財産으로 갖게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학교수의 대부분이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적 分析을 活潑히 할 수 있는 年齡層에 있고 또한 能力도 充分히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國際的으로 사람과 情報의 交流가 많은 요즘에 와서는 外國에서 새로 歸國한 젊은 教授가 반드시 보다 最新理論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外國에서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교수들은 한국자료를 사용한 實證的 研究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大學教科書부터 먼저 집필하는 것이 현재의 流行인 것 같다. 老年層教授들에 비해서 새로운 分析道具로 잘 무장한 젊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分析道具를 活用하여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學術論文과 著書를 많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韓國經濟學의 確立」은 可能해질 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만이 韓國經濟學者들간의 相互論著引用慣例도 생기고 또한 경제학자가 行政家나 權力追求의 御用學者가 아닌 專門家로서 현실적인 經濟政策 形成過程에 폭 넓게 參與하고 寄與度を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 朴 昇教授\*의 論評

1. 이 論文에서도 지적되어 있지만 한국경제학은 日帝時代에는 植民地의 與件에 마르크스 思想이 接木된 형태가 主流을 이루었고 해방이후에는 美國의 主流經濟學이 消化와 批判의 여과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로 輸入되어 이른바 輸入經濟學이 支配하였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輸入經濟學의 功過에 관한 문제로서 輸入經濟學이 한국경제의 初期的 工業化에 매우 중요하고도 肯定的인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다.

輸入經濟學이 우리의 것으로 土着化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效率至上의 實用的 理論으로서 韓國의 經濟發展에 직접 연결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韓國經濟의 發展初期條件이 開放型成長, 外資依存의 成長, 輸出主導의 成長, 工業化成長 등 輸入된 美國經濟學이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輸入經濟學에 의해서 한국의 工業化가 추진된 結果로 한국경제의 初期的 發展은 高速發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 中央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반면 不均衡性, 非道德性, 對外依存性의 문제들을 낳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輸入經濟學은 이제 비판과 消化의 여과과정을 거쳐 우리의 것으로 再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금후 한국경제학은 어떤 방향으로 定着되어야 할 것인가.

美國經濟學은 資本主義經濟의 效率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며 그런데서 客觀性, 歷史性, 人間性, 社會性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歐洲經濟學은 效率性보다도 平等性, 歷史性, 社會性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경제학과 다르다. 日本經濟學은 美國經濟學과 같은 뿌리이지만 實用性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학은 현재의 輸入된 美國經濟學에 日本經濟學의 실용성과 歐洲經濟學의 特性들을 補完하여 效率性・實用性・平等性(또는 社會性)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經濟學이 현실정책에 얼마만큼 參與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물론 經濟學은 政策的 實用에 초연하는 分野도 있어야 하고 직접 참여하고 응용되는 분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經濟學은 씹먹기 위한 社會科學이며 따라서 經濟學은 현실적인 경제운용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에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개발의 初期與件이 미국의 主流 經濟學이 잘 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經濟運用이 政治人들보다도 「테크노크래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經濟學과 現實經濟의 관계는 비록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앞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經濟政策의 수립과정이 개방되어야 하며, 한편 經濟學은 實用性을 重視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